

긍정적 해체주의 패션에 나타난 디자인 특성 연구 - 2014년 이후 컬렉션을 중심으로 -

김 소 희 · 김 윤⁺

덕성여자대학교 의상·텍스타일디자인학과 석사과정
덕성여자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조교수^{*}

요 약

최근 각종 부정적인 사건들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공포와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 대중들은 이전과 다르게 일상의 위협에 대해 긍정과 희망, 즐거움을 표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의 영향을 받아 해체주의 예술 역시 보다 긍정적인 형태로 변화하여 표현되고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긍정적 해체주의 패션의 사회·문화적인 발생배경과 디자인 표현 특성을 밝혀내고, 이를 통해 긍정적 해체주의 패션이 가지는 내적의미와 변화하는 현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와 사례 분석을 병행하였다. 긍정적 해체주의 패션은 사회 전반적으로 지속되는 부정적인 사건으로부터 비롯되는 상실감과 불안감을 극복하는 방식에서 기존 해체주의 패션과 차이를 보이며 새롭게 변화하여 등장하였다. 폐쇄적이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사회·문화적 문제를 해소했던 기존 해체주의 패션에서 긍정적, 유희적 그리고 대중적인 방향으로 표현하며 해체주의 패션이 변화하고 있다. 우선 기존 해체주의 패션의 특성을 기초로 긍정적 해체주의 패션에서 차별적으로 드러나는 특성을 도출한 결과, ‘긍정적·유희적 방향성’, ‘유스컬처 표현성’, ‘일상성’이 연구되었다. 이러한 긍정적 해체주의 패션의 특성을 토대로 2014년 이후의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긍정적 해체주의 패션디자인을 실루엣과 디테일, 컬러, 소재, 패턴으로 나누어 디자인 특성을 고찰하였다. 실루엣과 디테일 측면에서는 ‘일상성’을 중심으로 강조하였고 컬러에서는 ‘긍정적·유희적 방향성’을 가장 뚜렷하게 표현하였다. 소재는 ‘일상성’을 중심으로 긍정적으로 유스컬처 감성을 전달하였다. 패턴에서는 ‘유스컬처 표현성’을 강조하며 다소 반항적인 표현을 유희적으로 표현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외 패션 브랜드들과 학생들의 디자인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회·문화적 흐름이 동일한 패션 사조 내에서도 패션의 표현 방법의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해체주의, 긍정적 해체주의 패션, 일상성, 긍정적·유희적 방향성, 유스컬처 표현성

⁺교신저자: 김윤, yoonkim@duksung.ac.kr

접수일: 2017년 9월 4일, 수정논문접수일: 2017년 12월 4일, 게재확정일: 2017년 12월 11일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수 세기 동안 직접적이고도 강력하게 사회·문화적 특성 표현을 묵묵히 수행해 온 패션은 개인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현존 시대의 사회적 가치관을 대변하는 의사소통의 수단이자 사회 발전의 증거이다(Lee & Park, 2011). 20세기 말은 시대적으로 새로운 세기에 대한 기대와 불안, 혼란이 지속되었고 패션 분야는 해체주의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해체주의는 이성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서구적인 사상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해체양식을 통해 드러내는 포스트모더니즘 사조와 함께 발전하였다.

해체주의 패션은 해체주의 디자인의 대표주자이며 퍼포먼스적 경향이 강한 메종 마르지엘라(Maison M. Margiela), 전통적인 서구 여성복에 대한 관념을 거부하며 급진적인 해체주의 패션을 선보인 켄 코데 가르송(Comme des Garçons), 전통적인 가치체계에 반대하며 과시적 빈곤을 표현한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 Westwood),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속옷의 겉옷화로 성적의미를 해체시킨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 등에 의하여 꾸준히 전개되었다. 이는 주로 해체적 분리·재조합, 색다른 소재 및 아이템의 조합, 성의 경계를 해체, 속옷의 겉옷화, 신체의 왜곡, 파괴적 해체, 전통가치의 거부, 구제의복과 리사이클링, 과시적 빈곤, 문화적 요소 등의 특징을 보이며 발전했으며 사회·문화의 불안과 혼란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패션으로 표현되었다.

오늘날 사회 곳곳에는 테러의 위협이 있으며 이외에도 메르스와 같은 신종전염병의 일상화,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각종 자연재해 등은 현대인들에게 지속적인 공포를 키워내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사회 이슈와 맞물려 21세기 사회는 불안과 공포가

일종의 시대정신처럼 굳어지고 있다.

해체주의 패션은 사회·문화적 현상에 영향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변화하여 왔다. 21세기 현재 해체주의는 기존 해체주의에 기반을 두지만 이전의 해체주의 패션과는 다르게 불안과 공포를 극복하고 이를 긍정적 이미지로 시각화하여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과 함께 21세기 새로운 해체주의 패션으로 평가 받는 베트멍(Vetements), 자크뮈스(Jacquemus), 마르케스 알메이다(Marques' Almeida), 와이 프로젝트(Y Project) 와 같은 브랜드들에 대한 열정적인 지지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패션에 많은 영감을 주고 다양한 디자인으로 표현되는 해체주의 패션은 과거와 달리 긍정적 이미지를 시각화하여 유희적으로 표현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선행 연구(Jo & Park, 2017; Kim & Ha, 2016)등이 있으나 선행 연구의 수가 적고 디자인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 연구한 논문은 전무하여 변화하는 해체주의 패션에 관한 연구가 학문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해체주의 패션의 분석을 기초로 새롭게 변화하여 등장한 긍정적 해체주의 패션의 사회·문화적인 발생 배경을 고찰하고 긍정적 해체주의의 디자인 특성을 실루엣과 디테일, 컬러, 소재, 패턴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긍정적 해체주의만이 가지는 내적의미를 연구하고 이를 통해 현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해체주의를 20세기 말 기존의 해체주의와 2014년 이후 등장한 해체주의를 구분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2014년 이후 해체주의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Kim and Ha(2016)는 2014년 이후 해체주의 패션을 신·해체주의 패션으로 명명하였고 신·해체주의 패션

은 재미와 유희를 추구하는 미적 특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해체주의 성격이 짙은 브랜드 베트멍의 템나 바잘리아(Demna Gvasalia)에 대해 연구한 Jo and Park(2017)의 연구에서는 작품을 ‘유희성’과 연관 지어 해석 및 분석하였다. 긍정적 해체주의에 관한 연구는 기존 선행 연구와 재미와 유희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4년 이후 등장한 해체주의를 긍정적 해체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조작적 정의하였다. 연구방법은 첫째, 각종 문헌 및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하여 2010년 이전 해체주의 패션의 발생 배경 및 개념, 표현 특성을 분석하였다. 둘째, 긍정적 해체주의의 사회·문화·예술적 발생 배경을 밝히고 긍정적 해체주의 패션의 정의와 특성을 도출하였다. 셋째, 긍정적 해체주의 패션의 표현 특성을 기반으로 컬렉션에서 나타난 디자인특성을 실루엣과 디테일, 컬러, 소재, 패턴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2010년대 이전 해체주의 패션의 연구범위는 다수의 선행 연구를 통해 메종 마르지엘라, 쏜 데 가르송, 비비안 웨스트우드, 알렉산더 맥퀸, 장 폴 고티에로 한정한다. 변화하는 해체주의 패션을 연구한 선행 연구(Jiang, 2017; Jo & Park, 2017; Kim & Ha, 2016; Kim, 2016)를 참고하여 베트멍, 자크뫼스, 마르케스 알메이다를 긍정적 해체주의 패션의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학술적 연구 자료는 많지 않으나 이들과 공통된 특성을 나타내는 와이 프로젝트를 추가하여 연구범위를 한정한다. 긍정적 해체주의 패션의 시기적 범위는 대표되는 디자이너 및 브랜드의 컬렉션 데뷔 시점인 2014년 S/S부터 2017년 F/W 시즌까지로 제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학술지 및 학위논문, 관련 서적, 패션 전문 웹사이트, 패션매거진 등을 문헌 연구하였고 컬렉션 전문 패션 웹사이트인 보그닷컴(www.vogue.com), 퍼스트뷰닷컴(www.firstview.com), 패션위크데일리닷컴(www.fashionweekdaily.com)

등을 통해 관련 자료 및 이미지 자료를 수집하여 사례분석 하였다.

II. 해체주의 패션의 특성

1. 해체주의 발생 배경 및 개념

진 해밀턴(Jean A. Hamilton)은 패션의 변화는 문화와 관련이 있음을 언급하면서 복식은 문화의 하위 체계로서 특정한 문화의 보편성을 나타내며, 정치, 경제, 사회, 이데올로기 조직, 커뮤니케이션, 예술과 미학 등의 하위 문화적 체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표현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였다(Lee, 2002).

20세기 이후 현재까지 패션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문화, 예술사조인 해체주의는 1960년대 후반 자크 데리다(Jacque Derrida)를 중심으로 한 철학자들에 의하여 그 당시 널리 확산되어 있던 구조주의(structuralism)의 전체주의적 독선을 나타낸다는 한계상황을 극복하고자 나타난 사조이며(Lee, 2002) 해체라는 용어는 독일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가 「Sein und Zeit」에서 처음 사용한 ‘destruktion(해체 및 파괴)’의 프랑스어인 ‘déconstruction’을 프랑스 철학자 데리다가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의 모더니즘, 1970년대의 포스트모더니즘 이후에 나타난 해체주의는 사회문화 및 철학, 문학, 건축, 미술, 디자인과 같은 모든 예술 분야 전반에서 다양하게 표출, 적용되어 왔으며 기존 서구의 형이상학, 질서의 기초에 있는 것, 이원론 등을 부정하며 기존의 전통적인 가치들을 깨뜨리는 역할을 하였다. 현재까지도 인문과학 분야, 문학, 비평, 사회 심리학, 정치, 종교적 이슈, 영화, 순수 예술, 대중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

새로운 세기에 일어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만약했던 20세기 말에는 미·소 양국 중심의 냉전 체제는 종식되었지만 오히려 세계 경제 자유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오일쇼크 등과 같은 불안과 혼란은 계속되었고 이와 함께 나타난 해체주의 패션은 80년대 말부터 지속된 경제 불황의 충격이 전통적인 미적 기호의 수용을 거부하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경제적 질서를 창출하기 위한 일환으로서의 역설적인 시도와 스타일로 대두되었다(Kim & Ha, 2016).

해체주의는 해체의 한계를 정의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장르에서 전개 되고 있으며 패션을 포함하는 디자인 영역에서도 기존 가치를 부정하고 한계를 깨뜨리면서 현재까지도 폭 넓게 표현 되고 있다.

2. 2010년대 이전 해체주의 패션의 특성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대중들은 기능만을 강조한 모더니즘 디자인이 갖는 확실성 및 물개성에 대해 회의감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는 형태와 기능을 별개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왜곡되고 과장된 표현을 강조하는 해체주의가 등장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패션에서 해체주의라는 용어는 빌 커닝햄(Bill Cunningham)에 의하여 1989년 『Details』 잡지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1993년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개최된 인프라 어패럴(Infra Apparel)전의 카탈로그 편집자 리처드 마틴(Richard Martin)과 헤럴드 코다(Herold Koda)가 “복식에서 해체란 인공적으로 노출 시키거나 황폐화시키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Lee, 2002, p. 169) 알려지게 되었으며 해체주의 패션은 과감하고 외형적인 조형미만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디자이너의 정신적인 철학을 반영하고자 하는 시도로써 점차 완성되어 갔다(Kim & Ha, 2016).

해체주의 패션디자인은 관련 선행 연구(Cho, 2002; Chung & Kim, 2015; Jang & Lee, 2006; Jun, 2010; Kim, 1998; Kim, 2000; Kwon, 2009; Li, 2016;

No, 2004)등에 의해 다양하게 연구 되었으며 브랜드 메종 마르지엘라, 쏜 데 가르송, 비비안 웨스트우드, 알렉산더 맥퀸, 장 폴 고티에가 공통적으로 등장하였다. 또한 다수의 논문들이 2010년 이전의 컬렉션을 중심으로 한 해체주의 패션디자인 관련 연구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선행 연구에서의 해체주의 디자인 너들은 디자인 요소에 해체주의를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나타났다. 미의식의 선 동가라고 불리던 장 폴 고티에, 비서구적인 미를 파괴적으로 표현한 레이 가와쿠보(Rei Kawakubo)는 제 1세대 해체주의 패션 디자이너로 1980년대 초에 활동하였고, 1990년대에는 특유의 민족성을 특징으로 실험적 요소가 강한 디자인을 보여준 마르지엘라가 대표된다. 이들은 역설적인 시도와 스타일을 중심으로 해체주의 패션을 전개하였으며 노출, 빈곤, 파괴, 탈 구성, 상호 텍스트성 등의 특징들을 표현하였다. 2010년 이전 패션 컬렉션에서 해체주의를 패션에서 중심으로 표현한 디자이너로는 마르지엘라, 쏜 데 가르송의 가와쿠보, 웨스트우드, 맥퀸, 고티에가 대표적이다. 이들로 대표되는 2010년 이전의 해체주의 패션은 대중의 수용가능성과는 별도로 디자이너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와 표현 방식을 전위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두고 그 표현을 대중들에게 강요하고자 했다(Kim & Ha, 2016).

2010년 이전의 해체주의 패션에서는 해체적 분리·재조합, 색다른 소재 및 아이템의 조합, 성의 경계를 해체, 속옷의 겉옷화, 신체의 왜곡, 파괴적 해체, 무채색의 응용, 전통가치의 거부, 구제의복과 리사이클링 등과 같은 특징들이 대체적으로 나타났다. 디자이너에 따라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포함한 특징이 차별적으로 표현되었다. 일본적 감성을 강조한 쏜 데 가르송의 가와쿠보, 과시적 빈곤을 주로 표현한 웨스트우드와 맥퀸, 영국 전통 재단을 믹스하여 사용한 맥퀸, 다양한 문화적 요

소를 결합하여 형상화한 고티에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해체적 분리·재조합은 해체주의 대표 디자이너 패션에서 공통적으로 표현되는 특징이다. <Figure 1>과 같이 재킷의 칼라, 소매 등을 구조적으로 분리 한 후, 다른 위치에 재구성하는 구성방법의 해체·재조합, <Figure 2>처럼 재킷의 소매를 내부로 넣어 해체하고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여 기능의 목적을 해체·재조합한 경우, <Figure 3>과 같이 착장법을 해체하여 새로운 다양성과 기능성을 제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체적 분리·재조합을 바탕으로 역설적인 시도와 스타일을 전개하는 이들 디자이너들은 긴장감과 충격을 자아내는 파괴적인 해체, 미완성과 수공예적인 테크닉을 사용한 빈곤적 해체의 표현<Figure 4>, 의복의 기본색으로서 우아함을 포함하는 동시에 더러움, 슬픔, 불행 등의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무채색의 응용<Figure 5>, 비비안 웨스트우드와 같이 강한 실험성을 드러내며 신체를 왜곡함으로써 추함의 미를 표현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존 사회에 대한 반항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시각화해서 나타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표되는 2010년 이전의 해체주의 패션은 대중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보다는 다소 과격하고 부정적인 이미지의 표현과 전달을 통해 디자이너 자신의 강한 철학적 메

시지를 표현하였다.

III. 2010년대 이후의 해체주의 패션

1. 해체주의의 변화와 배경

대중매체를 통해 보이는 최근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이슈는 긍정적 내용보다 부정적인 내용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01년 9월 11일 9·11테러를 시작으로 테러의 방향은 정부기관이나 공적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하드 타겟(hard target)에서 소프트 타겟(soft target)으로 변화하였다(Dong, 2017). 소프트 타겟 테러는 세계 곳곳에서 기록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04년 스페인 마드리드 동시다발 열차 폭탄 테러, 2005년 영국 런던 7·7 지하철 연쇄테러, 2013년 미국 보스턴 마라톤대회 공격, 2014년 캐나다 오타와 국회의사당 총격과 호주 시드니 인질극, 2015년 프랑스 파리 무차별 테러, 벨기에 자살폭탄테러, 런던 웨스트민스터 다리 테러 등 다수의 테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며 테러에 대한 공포와 혼란은 일상을 위협하며 세계 모든 국가에서 공통의 이슈가 되고 있다.

테러 외에도 메르스와 같은 신종 질병의 발생,



Figure 1. 구성방법 해체.
From Vivienne Westwood
Ready-to-Wear Runway
Collection-Women
Spring/Summer 2003. (n.d.).
<http://www.firstview.com>



Figure 2. 기능의 목적 해체.
From FALL 1995
READY-TO-WEAR Comme
des Garçons. (1995).
<http://www.vogue.com>



Figure 3. 착장법 해체.
From SPRING 1998
READY-TO-WEAR Jean
Paul Gaultier. (1997).
<http://www.vogue.com>



Figure 4. 빈곤적 해체.
From Curate. (2017).
<https://www.shrimptoncouture.com>



Figure 5. 무채색 응용.
From SPRING 1998
READY-TO-WEAR
Maison Margiela. (1997).
<http://www.vogue.com>

원전 재난사고 등 굵직한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대중들에게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이 더 노출되었으며 이로 인한 상실감과 충격, 불안감 등이 높아지고 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인간의 유머적 태도(humorous attitude)는 불안에 대한 일종의 반항 심리이자 해소와 쾌감을 얻으려는 시도라고 말하였다. 지속적으로 불안과 위협에 노출된 대중들은 반동형성(reaction formation)과 같이 공포에 대한 감정을 반대로 대체하여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Lee, 2015). 이와 같이 대중들은 일상의 위협을 극복하고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서 과거와 같이 좌절, 분노 표출이 아닌 긍정과 희망, 즐거움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9.11 테러 이후 프리덤 타워(Freedom Tower)를 건설함으로써 슬픔을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극복하고 있으며 파리 시민들은 11.13 파리테러 이후 SNS에 일상을 지속하거나 여유 있는 삶을 보여줌으로써 테러에 평화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SNS에 #ripwestminster, #HopeNotHate, #LondonStrong, #PrayForLondon 등의 해시태그(hashtag)를 달며 테러에 극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세계적 공공 미술 작가 플로렌타인 호프만(Florentijn Hofman)의 러버덕(rubber duck) 프로젝트와 스위트 스완(sweet swans) 프로젝트는 대중 사이에서 많은 화제가 되며 스트레스를 받는 사회에 유쾌하고 긍정적 에너

지를 확산 시키는 역할을 했다. 부정적 사건들을 긍정적으로 극복하는 경향에 맞추어 사회의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식 역시 긍정과 희망, 즐거움을 표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회 문화 환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것을 선호하며 극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해체주의 예술 역시 과거보다 긍정적인 형태와 의도로 변화하여 표현되고 있다. 스페인 빌바오(Bilbao)의 구겐 하임 미술관을 디자인한 프랭크게리(Frank Gehry)는 새로운 소재와 독창적 기법을 사용하여 탈구형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해체주의 건축가이다. 그의 대표적 건축물인 1993년에 지어진 미네소타 주립대에 위치한 위스먼 아트 뮤지엄(Weisman Art Museum)과 2003년에 완공한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은 해체된 곡선적 오브제를 활용하여 연속성과 움직임을 표현하였다(Figure 6). 스테인리스 스틸과 같은 반사율이 높은 소재를 사용하여 곡선 외양을 드러냈던 작품과는 대조적으로 파나마시티에 2014년 완공한 바이오무세오(Biomuseo)는 기존 해체주의 특성은 유지하지만 직선과 화려한 색을 대비시키며 이전과는 다른 긍정적인 분위기를 드러냈다(Figure 7). 이 작품은 삭막한 사회에서 일탈을 꿈꾸는 현대인에게 행복감을 안겨주기



Figure 6. 1993 위스먼 아트 뮤지엄.
From VÉ MAY BAY ĐIMINNEAPOLIS
[Aircraft ticket go minneapolis]. (n.d.).
<http://vegiaredim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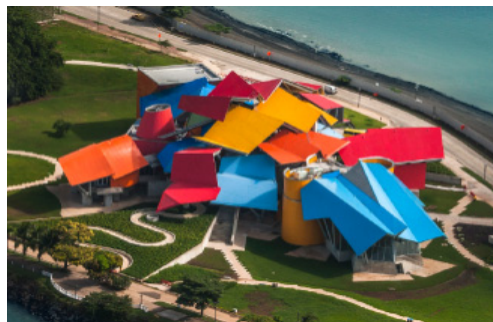


Figure 7. 2014 바이오무세오.
From EL EDIFICIO. (n.d.).
<http://www.biomuseopanama.org>

Table 1. 기존 해체주의와 긍정적 해체주의의 특징 변화.

구분	사회적 배경	문화적 배경	대중의 반응	표현 특징
기존 해체주의	- 오일쇼크 및 80년대 말부터 지속된 경제 불황의 충격	- 행위적 관점에서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 - 기성세대에 대한 모순을 비판함	- 전통적인 미적 기호의 수용을 거부	- 파괴적이며 왜곡되고 과장된 표현을 강조
긍정적 해체주의	- 소프트 타격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테러와 신종 질병의 발생, 원전 재난사고	- 개인의 감정에 충실하며 SNS 등 소통방식의 변화 - 유희적 표현 방식인 유머의 다양한 활용	- 공포에 대한 감정을 반대로 대체하여 부정	- 긍정과 희망, 즐거움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변화

위해 조각 작품 같은 예술 건물을 짓는 건축가들이 증가(Yu, 2015)하는 사회의 긍정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다양한 사회·문화·예술에서의 긍정적 표현 선호현상과 함께 해체주의 패션도 과거와 다른 표현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해체주의 패션은 보다 친숙하고 긍정적 이미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해체주의의 변화에 따른 비교는 <Table 1>과 같다.

2. 긍정적 해체주의 패션의 정의와 특성

폐쇄적이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표현되었던 해체주의가 긍정적이고 대중적 표현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의 긍정적 선호 경향과 함께 새롭게 변화한 해체주의를 긍정적 해체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조작적 정의하였다.

2014년 이후를 중심으로 해체주의 패션을 연구한 선행 연구(Jiang, 2017; Jo & Park, 2017; Kim & Ha, 2016; Kim, 2016) 등을 분석한 결과 긍정적 해체주의를 대표하는 디자이너로 베트멍, 마르케스 알메이다, 자크뫼스가 있다. 이들의 디자인에는 기존 해체주의 패션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인 해체적 분리·재조합, 색다른 소재 및 아이템의 조합, 성의 경계를 해체 외에도 새로운 해체주의 관점 제시, 긍정적·유희적 메시지 전달, 상징적 컬러의 사용, 스트리트 감성의 유스컬처, 패러디식 프린트, 타이포그래피의 활용, 일상적인 의복의 구성,

단순한 실루엣 등 긍정적 해체주의 패션에서만 표현되는 특징들이 있다(Table 2).

선행 연구와 문헌정보를 분석한 결과, 비대중적이고 수공예적인 특성이 강했던 2010년대 이전의 해체주의 패션과 달리 긍정적 해체주의에서만 보이는 특징으로는 ‘긍정적·유희적 방향성’, 하위문화를 반영하는 ‘유스컬처 표현성’, 대중적인 공감을 이끌어내는 ‘일상성’ 등이 대표적이다. <Figure 8>과 같이 의도적으로 흠집 내거나 구김으로써 옷감 자체를 파괴시켜 옷을 재구성한 장 폴 고티에와 같이 기존의 해체주의 패션은 파괴적인 해체로 충격적인 효과와 긴장감을 표현했다. 외적표현 방식에 있어서 긍정적 해체주의 패션 역시 의도적으로 소재를 변형하고 옷을 재구성하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위트와 즐거움의 내적특성을 가지고 신선한 방식으로 표현하며 새로운 해체주의 관점을 제시한다(Figure 9). <Figure 10>과 같이 주로 무채색을 이용하여 기존체제에 대한 저항의지를 표현하고자 했던 메종 마르지엘라와 대조적으로 자크뫼스는 긍정적 메시지에 대한 상징적이고 밝은 색상을 사용한다(Figure 11). “옷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간단하다. 바로 단순함의 행복이다”(Park, 2015)라고 언급하는 자크뫼스의 인터뷰 내용처럼 긍정적 해체주의 패션은 보다 밝고 다양하며 상징적인 컬러를 사용함으로써 긍정적이고 유희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또한 긍정적 해체주의는 반문화적인 동시에 개인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유스컬처를 중심으로

표현된다. <Figure 12>와 같이 ‘추의 미학’을 선보이며 기존의 권력 구조와 체계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던 기존 해체주의 패션과는 달리 긍정적인 해체주의 패션에서는 패러디식 프린트, 타이포그래피를 활용하여 저항의 메시지를 드러내고 있다. <Figure 13>의 베트멍 컬렉션에서는 ‘MAY THE BRIDGES I BURN LIGHT THE WAY’라는 타이포그래피를 통해 파리티에에 대한 분노, 저항의 메시지를 은유적 시적 감성으로 표현하고 있다 (Nam, 2017).

Kim and Ha(2016)는 패션의 ‘일상성’을 베트멍, 마르케스 알메이다, 자크뤼스의 패션을 정의하는데 빠질 수 없는 개념이라 설명하였고 이는 대중적으로 쉽게 접근하고 활용이 가능한 긍정적 해체주의 패션의 대표적 특성이다. <Figure 14>와

같이 베트멍은 탈구성적이며 반문화적 메시지를 강조하지만 동시에 단순한 실루엣을 기반으로 대중적이고 일상적 형태와 소재를 사용한 의복 아이템으로 컬렉션을 구성한다. 해체성이 강한 데님 컬렉션으로 유명한 마르케스 알메이다는 저항을 기반으로 하는 유스컬처를 표현하는 동시에 즐거움이 있는 심플하고 웨어러블한 옷을 추구한다 (Figure 15).

기존 사회에 대한 저항의식을 표현한다는 외적인 표현 특성에서 두 해체주의 패션은 공통점을 가지지만 긍정적 해체주의 패션은 일상적이고 유희적인 방식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시각화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긍정적 해체주의 패션의 특성들이 베트멍, 마르케스 알메이다, 자크뤼스의 컬렉션에서 시각적으로 뚜렷하게 보이고 있



Figure 8. 파괴적인 해체.
From SPRING 2000
READY-TO-WEAR
JEAN-PAUL-GUALTIER. (1999).
<http://www.vogue.com>



Figure 9. 위트 있는 해체.
From SPRING 2016
READY-TO-WEAR Jacquemus.
(2015).
<http://www.vogue.com>



Figure 10. 무채색 사용.
From FALL 1995 READY-TO-WEAR
Maison-martin-margiela. (1995).
<http://www.vogue.com>



Figure 11. 밝은 컬러 사용.
From Chivu. (2016a).
<https://fashionweekdaily.com>



Figure 12. 추의 미학.
From SPRING 1998
READY-TO-WEAR Comme des
Garçons. (1997).
<http://www.vogue.com>



Figure 13. 타이포그래피.
From Chivu. (2016b).
<https://fashionweekdaily.com>



Figure 14. 일상적인 의복.
From SPRING 2017
READY-TO-WEAR Vetements.
(2016a).
<http://www.vogue.com>



Figure 15. 유스컬처 표현.
From Chivu. (2015a).
<https://fashionweekdaily.com>

Table 2. 선행논문을 통한 긍정적 해체주의 특성 정리.

디자이너	구분	표현 특징	연도				특성
			16a	16b	17a	17b	
베트멍	해체주의 표현 특징	해체적 분리·재조합	○	○	-	○	-
		색다른 소재 및 아이템의 조합	○	○	-	○	-
		성의 경계 해체	○	○	○	-	-
	긍정적 해체주의 표현 특징	새로운 해체주의 관점 제시	○	○	-	○	긍정적·유희적 방향성
		긍정적·유희적 메시지 전달	-	○	-	○	긍정적·유희적 방향성
		상징적 컬러 사용	○	-	-	○	긍정적·유희적 방향성
		유스컬처	○	○	-	○	유스컬처 표현성
		패러디식 프린트, 타이포그래피의 활용	○	○	-	○	유스컬처 표현성
		일상적인 의복의 구성	○	○	-	○	일상성
		단순한 실루엣	○	-	-	○	일상성
마르케스 알메이다	해체주의 표현 특징	해체적 분리·재조합	-	○	○	-	-
		색다른 소재 및 아이템의 조합	-	○	-	-	-
	긍정적 해체주의 표현 특징	새로운 해체주의 관점 제시	-	○	-	-	긍정적·유희적 방향성
자크뤼스	해체주의 표현 특징	해체적 분리·재조합	-	○	○	-	-
		색다른 소재 및 아이템의 조합	-	-	○	-	-
		성의 경계 해체	-	○	-	-	-
	긍정적 해체주의 표현 특징	새로운 해체주의 관점 제시	-	○	-	-	긍정적·유희적 방향성
		긍정적·유희적 메시지 전달	-	○	-	-	긍정적·유희적 방향성
		일상적인 의복의 구성	-	○	-	-	일상성

※ 16a: Kim(2016), 16b: Kim and Ha(2016), 17a: Jiang(2017), 17b: Jo and Park(2017)

으며, 이러한 변화를 디자인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한 선행 연구가 거의 없으므로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가진다.

IV. 긍정적 해체주의 패션의 디자인 특성 연구

본 장에서는 앞장에서 논의된 긍정적 해체주의 패션의 특징인 긍정적·유희적 방향성, 유스컬처

표현성, 일상성을 토대로 2014년 이후의 컬렉션에 나타난 긍정적 해체주의 패션디자인을 실루엣과 디테일, 컬러, 소재, 패턴으로 나누어 디자인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앞서 긍정적 해체주의 패션의 대표 디자이너 및 브랜드로 언급한 베트멍, 마르케스 알메이다, 자크뤼스 외에도 아직 학술적 선행 연구가 많지 않으나 선행 연구로 대표되는 패션디자이너들과 긍정적·유희적 방향성, 유스컬처 표현성, 일상성 등에서 공통된 특성을 나타내는 와이 프로젝트도 연구대상에 포함하였다.

1. 실루엣과 디테일

긍정적 해체주의 패션에서 실루엣은 일상성을 가지며 전반적으로 단순한 스트레이트 실루엣이나 A 라인 실루엣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주로 구조적으로 과장된 오버사이즈 실루엣으로 의복 구조 및 착장 법을 해체하는 특성을 드러내지만 직선적이고 단순한 실루엣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2010년대 이전 해체주의 패션과 차별점이 있다.

<Figure 16>과 같이 자크뫼스는 원피스의 소매를 생략하여 소매 기능의 목적을 파괴하는 동시에 착장 법을 해체하였다. 다소 파격적인 착장 법을 제시하지만 디테일을 생략시킨 단순한 스트레이트 실루엣을 표현하고 원피스 위에 넥타이를 착용시켜 마치 셔츠처럼 보이도록 유도함으로써 셔츠 역할을 상징하고 기존 형태를 탈피하였으나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긍정적이고 유희적인 이미지를 시각화하였다. 마르케스 알메이다는 일상적인 의복 아이템인 셔츠를 원피스의 착장법이 가능 하도록 소매와 커프스 부분을 과장시켜 단순한 오버사이즈 실루엣을 표현하였다(Figure 17). 장식적인 디테일은 생략되었으나 부분적 디테일의 형태 강조와 오버사이즈 실루엣은 착용 시 인체의

편안함, 일상에서의 활동성을 강조하며 유희적인 방향으로 해체적 특성을 드러낸다. 베트명은 매 컬렉션마다 신체의 형태를 무시한 오버사이즈 실루엣을 기반으로 스트리트 패션에서 보이는 반항적 감성과 해체적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Figure 18>과 같이 어깨를 과장시키고 소매를 길게 늘어트리며 신체를 왜곡시키는 동시에 하위문화인 펑크의 반항적 감성을 대표하는 체크패턴을 사용하여 직선적인 실루엣을 표현하였다. 진동 부분 슬릿 디테일은 구성적 해체와 함께 직선적인 소매 실루엣을 강조하였다. 젊은 세대의 스트리트 감성을 기반으로 유사한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시그니처 아이템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는 특징을 가진 베트명은 인위적으로 어깨선을 축소하고 목 부분까지 치켜 올려 일상복의 의복 구조를 해체하여 단순하며 인체축소를 보여주는 스트레이트 실루엣을 표현하였다. 베트명은 장식적인 디테일을 생략하고 고무단으로 구성된 착용이 용이한 일상적인 의복 아이템을 중심으로 컬렉션을 구성한다(Figure 19). 와이 프로젝트는 <Figure 20>과 같이 소매를 구조적으로 분리 한 후, 다른 위치에 재구성하여 구성방법을 해체하고 재조합하였다. 해체적으로 재조합된 소매 강조를 위해 길게 늘어뜨



Figure 16. 스트레이트 실루엣.
From Jacquemus-
Ready-to-Wear-Runway
Details-Women
Spring/Summer 2016.
(2015).
<http://www.firstview.com>



Figure 17. 오버사이즈 실루엣.
From Marques Almeida
Ready-to-Wear Runway
Collection Spring/Summer
2017. (2016).
<http://www.firstview.com>



Figure 18. 직선적인 실루엣.
From Vetements -
Ready-to-Wear-Runway
Collection-Women
Fall/Winter 2016. (2016a).
<http://www.firstview.com>



Figure 19. 디테일 생략.
From FALL 2016
READY-TO-WEAR
Vetements. (2016a).
<http://www.vogue.com>



Figure 20. 직선적인 비대칭.
From Y Project-
Ready-to-Wear Runway
Collection-Women
Spring/Summer 2017.
(2016a).
<http://www.firstview.com>

린 직선적 실루엣의 소매는 좌우 비대칭 구조를 통해 더욱 구조적 왜곡을 강조하였다. 와이 프로젝트 역시 장식적인 디테일을 사용하기보다는 분리한 소매의 일부를 스냅버튼으로 자유롭게 고정하여 착용자가 구조를 직접 자유롭게 변형시켜 착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구조의 변형 자체가 하나의 디테일이 되는 특징을 가진다.

긍정적 해체주의 패션은 구조적 형태와 착장법을 해체하고 재조합 하는 기존과 같은 특징을 가지면서도 보다 단순한 실루엣의 표현과 최소화된 디테일의 사용으로 특징지어 진다. 과장된 오버사이즈 실루엣을 통해 긍정적·유희적 방향성, 일상성을 표현하였고 신체를 왜곡시킨 실루엣이 반항적 감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유스컬처의 표현 특성을 찾아 볼 수 있다. 즉 긍정적 해체주의 패션은 해체주의의 반항적인 감성을 유쾌하게 드러내면서 일상에서 착용이 용이하고 긍정적인 욕구를 자아낸다.

2. 컬러

주로 무채색을 사용하여 현실을 부정하고 기성 문화에 대한 반항의 심리를 표현 했던 기존 해체주의 패션과는 다르게 긍정적 해체주의 패션은 고명도, 고채도, 밝고 강렬한 컬러의 대비사용을 중심으로 긍정적 표현으로 전달한다. 어린이들의 순진하고 천진난만함, 순간적인 것이 패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는 자크뷔스의 컬렉션에서는 어린 시절의 동심과 원초적인 본능이 느껴지는 고명도, 고채도 컬러와 부드러운 느낌의 컬러를 주로 사용한다. 색의 삼원색인 마젠타(magenta), 사이언(cyan), 옐로우(yellow)가 한 착장에서 서로 컬러 대비를 이루며 연출되었지만 고명도의 밝고 부드러운 컬러를 사용함으로써 경쾌하고 유희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Figure 21). 와이 프로젝트는 무채색을 중심으로 컬렉션을 전개하지만 채도가 높고

부드러운 코발트그린(cobalt green)과 같은 컬러를 악센트 컬러(accent color)로 활용하여 스트리트 감성을 기반으로 한 유스컬처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Figure 22). 또한 재킷, 셔츠, 팬츠를 같은 톤의 컬러로 구성하지만 동일한 톤의 컬러를 사용한 패턴을 적용하거나 명도, 채도에 차이를 주어 한 착장 안에서 경쾌하고 부드러운 컬러를 리듬감 있게 표현하여 해체주의 패션을 긍정적·유희적인 방향으로 나타내었다(Figure 23). 베트명은 특히 2016년 F/W 컬렉션에서 단순한 실루엣으로 구성된 일상적인 의복 아이템에 스트리트 감성이 짙은 오렌지, 레드, 그린, 블루, 핑크 등의 원색을 사용하여 해체주의를 시각화 하였다. <Figure 24>에서는 클래식한 아이템인 트렌치코트(trench coat)와 활동성이 높은 트레이닝 세트를 함께 착용하여 일반적인 인식의 착장에서 벗어난 구성 방법으로 새로운 착장법을 제시한다. 두 아이템 모두 포멀웨어와 스포츠 웨어에서 각각 대중화된 일상성을 가지는 아이템들로 이들의 구조화적인 착장 결합은 해체적 성격을 표현한다. 무채색을 메인컬러로 전개했던 기존 해체주의 패션과는 다르게 선명하고 강렬한 오렌지 컬러를 메인으로 사용하여 스트리트 감성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베트명은 컬렉션에서 주로 한 착장에 강한 원색계열의 컬러를 단독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고 원색계열과 무채색, 뉴트럴 톤과 같이 일상적으로 접근이 쉬운 컬러와 조화시켜 표현하기도 한다. 데님을 중심으로 컬렉션을 전개하는 마르케스 알메이다는 데님뿐만 아니라 쉬폰(chiffon), 오간자(organza), 퍼(fur)와 같은 시각적·촉각적으로 부드러운 소재에 오렌지, 레드, 그린, 핑크, 바이올렛, 에메랄드 등의 밝은 컬러를 사용하여 기존의 파괴적인 방식과는 차별적으로 긍정적이고 유희성이 짙은 해체주의를 표현하였다. <Figure 25>는 소매의 구성선을 분리하며 해체주의 패션의 특성 안에서 고명도의 바이올렛 컬러의 퍼를 전체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밝고 부드러우며 긍정적인 이미지를 시각화와 촉각 화하여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긍정적 해체주의 패션은 컬러 특성에서 기존 해체주의 패션과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인다. 고명도, 고채도, 강렬한 원색과 부드러움을 표현하는 컬러를 단독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일상적인 컬러와 조화시켜 사용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긍정적이고 유희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심플한 룩을 중심으로 표현하는 نوم코어(Nomcore)와 스포츠(sports)의 합성어인 스포츠코어(sportscore) 룩이 등장하였고 이러한 트렌드에 맞물려 긍정적 해체주의 패션은 스포티하고 일상적인 의복에 밝고 강렬한 컬러를 사용함으로써 젊음의 에너지, 스트리트 감성을 표현하는 특징이 있다.

3. 소재

과거 해체주의 패션에서는 주로 의복에 사용하지 않았던 색다른 소재를 의복에 적용하거나 이질적인 이미지의 소재 혼합을 적극적이고 과격하게 사용하였다. 긍정적 해체주의 패션 역시 이질적인 이미지의 소재를 혼합하여 사용하지만 기존 해체

주의 패션과는 다르게 완전히 색다른 소재의 사용보다는 일상적인 의복에서 사용되는 소재를 중심으로 디자인을 전개한다.

매 시즌 아방가르드한 데님의 특색 있는 변화를 선보이며 각광받는 마르케스 알메이다는 젊음, 스트리트, 해체와 섞음을 키워드로 디자인을 전개한다. 하위문화를 상징하는 소재이며 매우 대중적이고 일상적 소재인 데님을 물리적 적용을 통해 찢거나 올 폴림, 워싱 등의 효과를 적용하였고 데님에 데님을 레이어링하거나 볼륨감 있는 형태와 색다른 소재의 적용으로 해체주의 패션을 표현하였다. <Figure 26>은 밀단과 소매의 시접선 마무리 처리를 하지 않고 올 폴림 그대로를 표현하면서 미완성의 미학을 드러내고 있지만 기존 해체주의 패션이 빈곤적 이미지를 시각화 하여 표현한 것과는 다르게 젊음, 유스컬처 이미지를 경쾌하게 일상적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Figure 27>과 같이 와이 프로젝트는 일상적인 데님 소재를 사용하는 동시에 컬러풀하고 소프트한 소재의 러플장식을 함께 활용하여 리듬감 있고 유동적이며 경쾌한 디자인을 구성하였다. 소프트한 소재의 러플 장식을 상의에 활용하여 트렌드를 반영하고 일상적인 특성과 스트리트 감성을 동시에 표현하



Figure 21. 고명도 컬러 사용.
From Jacquemus-Ready-to-Wear-Runway Collection-Women Spring/Summer 2015. (2014).
<http://www.firstview.com>



Figure 22. 고채도 컬러 사용.
From Y Project-Ready-to-Wear-Runway Collection-Women Fall/Winter 2016. (2016).
<http://www.firstview.com>



Figure 23. 부드러운 컬러. From Y Project-Ready-to-Wear-Runway Collection-Women Spring/Summer 2017. (2016b).
<http://www.firstview.com>



Figure 24. 원색의 사용. From FALL 2016 READY-TO-WEAR Vetements. (2016b).
<http://www.vogue.com>



Figure 25. 고명도 바이올렛. From Chivu. (2015b).
<https://fashionweekdaily.com>



Figure 26. 데님 올 풀림.
From Marques Almeida
Ready-to-Wear Runway
Collection Spring/Summer
2016. (2015).
<http://www.firstview.com>



Figure 27. 러플의 활용.
From Y/Project
Spring/Summer 2016
Ready-To-Wear Collection.
(2015).
<http://www.vogue.co.uk>



Figure 28. 이질적 소재
혼합.
From SPRING 2017
READY-TO-WEAR
Vetements. (2016b).
<http://www.vogue.com>



Figure 29. 일상적 소재.
From SPRING 2016
READY-TO-WEAR
Vetements. (2015).
<http://www.vogue.com>



Figure 30. 다양한 소재
혼합.
From Jacquemus-
Ready-to-Wear-Runway
Collection-Women
Fall/Winter 2016. (2016).
<http://www.firstview.com>

였다. 베트명은 <Figure 28>과 같이 신체가 비치는 소프트한 쉬폰소재와 광택을 가지고 하드한 재질감의 에나멜과 같이 이질적 시각과 촉감의 소재 혼합을 통하여 기존 해체주의적 특성을 드러내었고, <Figure 29>와 같이 코튼, 저지 등과 같은 일상적인 패션 소재의 의복과 강렬한 옐로우 컬러의 에나멜 신발의 컬러 대비를 통해 패션의 일상성을 유희적으로 표현하였다. 자크뮈스의 2016년 F/W 컬렉션에서도 일상적인 소재의 사용이 대체적이다. 한 착장 안에 트레이퍼리한 소재, 서로 다른 패턴과 컬러의 코튼소재를 혼합 사용하여 소재 무게감의 경증을 통해 리듬감을 유희적으로 표현하였다(Figure 30).

긍정적 해체주의 패션에서 이질적인 소재 조합은 이전과 같이 여전히 활용되고 있지만 방식과 전달하는 메시지가 차이가 있다. 두 해체주의 패션 모두 데님이라는 동일한 소재를 사용하지만 긍정적 해체주의 패션은 좀 더 젊음과 유스컬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한다. 또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일반적인 의복 소재인 저지를 적극적으로 조합·사용함으로써 일상성, 유희성을 표현하였다. 즉, 긍정적 해체주의 패션에서의 소재 활용은 보다 일상적이고 유희적인 방식, 유스컬처를 표현하는 방향으

로 전개되고 있다.

4. 패턴

기존 해체주의 패션이 무채색을 통한 제한된 사용, 이질적 소재를 결합하여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메시지를 나타냈다면 긍정적 해체주의 패션은 다양한 패턴의 활용, 레터링, 타이포그래피 등을 통해 현 사회에 대한 풍자 및 비판적 시각을 명쾌하도록 직접적이고 가벼운 방식으로 표현한다.

자크뮈스와 마르케스 알메이다는 다양한 컬러의 스트라이프, 체크, 도트 등의 패턴을 통해 경쾌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표현한다(Figure 31), (Figure 32). 유사한 방식으로 와이 프로젝트는 <Figure 33>과 같이 로맨틱한 느낌 전달을 위해 러플 디테일 등을 사용하였지만 좀 더 직접적인 메시지 전달을 위해 티셔츠에 하트 프린팅을 하여 스트리트 감성과 유희성을 드러냈다. 이전의 파괴적인 해체와는 다르게 다양한 슬로건을 유희적으로 가볍게 전달하는 베트명은 보다 직접적인 이해를 유발시키는 메시지를 드러낸다. ‘TOTAL FUCKING DARKNESS’라는 욕설이 포함된 과격한 표현을 티셔츠에 프린트해서 현 사회문화에 대한 풍자 및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다(Figure 34). 또한 타이포그래피, 프린팅 뿐 아니라 가벼운 패러디 방식을 사용



Figure 31. 도트패턴의 사용.
From Jacquemus-
Ready-to-Wear-Runway
Collection-Women
Spring/Summer 2017.
(2016).
<http://www.firstview.com>



Figure 32. 체크패턴의 사용.
From Marques Almeida
Ready-to-Wear Runway
Collection Fall/Winter 2017.
(2017).
<http://www.firstview.com>



Figure 33. 하트 프린팅.
From Y Project-
Ready-to-Wear-Runway
Collection-Women
Spring/Summer 2017.
(2016c).
<http://www.firstview.com>



Figure 34. 타이포그래피.
From Vetements-
Ready-to-Wear-Runway
Collection-Women
Fall/Winter 2016. (2016b).
<http://www.firstview.com>



Figure 35. 패러디 티셔츠.
From Vetements-
Ready-to-Wear-Runway
Collection-Women
Spring/Summer 2016.
(2015).
<http://www.firstview.com>

하여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한다. 글로벌 운송기업 'DHL' 로고를 사용한 티셔츠는 기존 패션업계에 대한 반항의 메시지를 가볍고 유희적인 방식으로 표현하였다(Figure 35). 베트멍은 하위문화의 유스컬처를 기반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반항적이고 과격한 메시지를 드러내지만 동시에 가볍고 유희적인 방식인 타이포그래피, 프린팅, 패러디를 통해 메시지를 대중적이고 즐겁게 표현하였다.

패턴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긍정적 해체주의는 스트라이프, 도트와 같은 다양한 기본 패턴, 타이포그래피, 프린팅, 패러디 등의 유희적인 방식을 통해 사회·문화에 대한 메시지를 보다 가볍고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캐주얼웨어에 일반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어지는 스트라이프, 도트 패턴, 프린팅을 통해 패션의 일상성, 스트리트 유스컬처 표현성을 드러낸다. 타이포그래피, 패러디를 이용한 표현을 통해 반항적인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만 원색의 다양한 컬러와 일상적인 소재를 통해 함께 사용함으로써 스트리트 감성을 유희적으로 표현하였다.

이상에서 분석한 긍정적 해체주의 패션의 디자인 특성을 선행 연구에서 기존 해체주의 패션 특성과 비교하여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실루엣과 디테일에서는 디테일을 최소화한 직선적이고

단순한 실루엣을 통해 일상성을 중심으로 표현하였다. 특히 컬러에서는 2014년 이전의 해체주의 패션과의 차이점이 시각적으로 강하게 드러났다. 고채도의 원색과 조합을 통하여 스트리트 감성의 유스컬처를 표현하였고 밝고 부드러운 톤의 색상을 사용하여 긍정적·유희적 방향성을 강조했다. 소재에서는 일상성, 유스컬처 표현성이 대표적인 디자인 특징으로 나타났다. 소재를 혼합 사용하는 기존 특성은 유지하면서 하위문화와 같은 유스컬처를 상징하는 소재인 데님을 적극 활용하고, 일 반적이고 대중적인 의류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패션의 일상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패턴을 통해 긍정적 해체주의가 표현하는 메시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시각화하여 표현하였다. 다양한 컬러의 패턴을 통해 긍정적·유희적 방향성을 강조하였고 사회에 대한 반항적 메시지를 레터링, 타이포그래피 등의 방식을 통해 드러내며 유스컬처 표현성을 나타내었다.

V. 결 론

최근 각종 테러의 위협, 신종 질병의 발생, 재난

사고와 같은 부정적인 사건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상실감과 불안감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문화·예술적으로 이를 극복하고 해소하는 방식이 좌절감, 분노를 드러냈던 이전과 다르게 긍정과 희망, 즐거움을 표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 유스컬처 트렌드와 함께 빠르게 특징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해체주의 패션 역시 긍정적인 메시지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새롭게 변화한 해체주의 패션을 ‘긍정적 해체주의 패션’이라고 조작적 정의하여 긍정적 해체주의 패션의 발생배경과 특징을 고찰하였고 기존 해체주의 패션 특징을 바탕으로 디자인 특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문화적 현상에 영향을 받으며 변화, 지속되는 해체주의 패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새롭게 변화한 긍정적 해체주의 패션의 디자인 특성을 학술적으로 정리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 해체주의 패션으로 대표되는 메종 마르지엘라, 쏜 데 가르송, 비비안 웨스트우드, 알렉산더 맥퀸, 장 폴 고티에의 컬렉션 디자인을 분석한 결과, 해체적 분리·재조합, 색다른 소재 및 아이템의 조화, 성의 경계를 해체, 속옷의 겉옷화, 신체의 왜곡, 파괴적

해체, 무채색의 응용, 전통가치의 거부, 구제의복과 리사이클링, 문화적 요소, 과시적 빈곤 등의 특성이 나타났다. 긍정적 해체주의 패션 역시 해체적 분리·재조합, 색다른 소재 및 아이템의 조화, 성의 경계 해체 등의 기존 특성을 공통적으로 표현하였다. 하지만 긍정적 해체주의 패션으로 정의한 대표적인 디자이너 베티명, 마르케스 알메이다, 자크뫼스, 와이 프로젝트의 컬렉션을 통해 새로운 해체주의 관점 제시, 긍정적·유희적 메시지 전달, 상징적 컬러 사용, 유스컬처, 패러디식 프린트, 타이포그래피의 활용, 일상적인 의복의 구성, 단순한 실루엣 등과 같은 긍정적 해체주의 패션에서만 나타나는 표현 특징을 정리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표현 특징을 긍정적·유희적 방향성, 유스컬처 표현성, 일상성 3가지 특성으로 분류하여 연구하였다.

긍정적 해체주의 패션에 나타난 디자인의 특성을 실루엣과 디테일, 컬러, 소재, 패턴으로 살펴본다. 실루엣과 디테일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단순한 실루엣을 표현하였고 디테일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일상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특정 신체부위를 강조, 왜곡 시키는 과장된 오버사이즈 실루엣을 통해 반항적 감성을 유희적으로 표현하였다.

Table 3. 긍정적 해체주의 패션의 디자인 특성.

기존 해체주의 패션	디자인 요소	긍정적 해체주의 패션	디자인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장법의 불확실성 - 비구조적, 비대칭 - 새로운 신체 비율의 해석 - 신체의 왜곡 	실루엣 & 디테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한 실루엣 - 오버사이즈 실루엣 - 디테일의 최소화 - 신체를 왜곡시킨 실루엣 	긍정적 유희적 방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채색 응용 - 절제된 색상의 사용 	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명도, 고채도, 강렬한 원색의 사용 - 부드러움을 표현하는 컬러의 단독적 사용 - 뉴트럴 컬러와 고채도 컬러의 조화 - 스포티하고 일상적인 의복에 밝고 강렬한 컬러를 사용 	유스컬처 표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질적 소재의 병행 - 부적절 소재의 사용 - 재료의 혼합 및 소재의 파괴 - 구제의복과 리사이클링 	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적 패션소재인 데님의 적극적 사용 - 일반적인 의복 소재인 저지 등의 적극적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턴의 활용보다는 파괴적 해체를 강조하기 위해 소재의 변형을 많이 사용 	패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컬러의 스트라이프, 도트 패턴사용 - 사회에 대한 반항적 메시지를 프린팅, 타이포그래피, 패러디를 통해 표현 	일상성

컬러에서는 긍정적 해체주의 패션의 특징이 가장 뚜렷하게 표현되었는데 고명도, 고채도의 밝고 강렬한 컬러를 주로 사용함으로써 보다 유희적이고 젊은 감성을 드러냈다. 긍정적으로 유스컬처 감성을 전달하는 특성은 소재에서도 나타났다. 기존 해체주의 패션과 동일하게 이질적인 소재 조합을 활용하지만 코튼, 저지와 같은 일상적인 소재를 중심으로 다양하고 유희적인 방식으로 소재를 조합하여 표현하였다. 패턴에서는 사회·문화에 대한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강하게 표현하였다. 스트라이프, 도트와 같은 일상적인 기본 패턴의 사용, 타이포그래피, 프린팅, 패러디와 같은 유희적이고 다소 반항적인 표현을 무겁지 않게 표현하였다.

이상의 컬렉션 분석을 통해 디자인 특성을 선행 연구에서 기존 해체주의 특성과 비교하여 고찰한 결과 긍정적 해체주의 패션에 나타난 내적의미는 긍정적·유희적 방향성, 유스컬처 표현성, 일상성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사회·문화의 흐름이 동일한 패션 사조 내에서도 패션의 표현방법 및 방향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변화하는 표현방법과 방향의 분석 및 제시를 통해 국내·외 패션 브랜드들과 학생들의 디자인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 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한 세기를 이어 나타나고 있는 변화하는 해체주의 사조에 대한 학술적 정리를 통해 연구의 방향을 새롭게 제시한 것에 의의를 둔다.

본 연구는 기존 해체주의 패션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있어 선행 연구와 패션 전문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으나 긍정적 해체주의 패션이 2014년 이후에 적극적으로 등장하였고 이에 대한 학술적인 선행 연구가 부족하여 디자인 특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선행 연구 보다는 패션컬렉션 이미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연구하여 연구자의 주관적인 측면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References

- Chivu, D. (2015a, February 24). MARQUES ALMEIDA LONDON RTW FALL WINTER 2015 FEBRUARY 2015. *the Daily front row*. Retrieved August 7, 2017, from <https://fashionweekdaily.com/marques-almeida-fall-2015/marques-almeidalondon-rtw-fall-winter-2015-february-2015-5>
- Chivu, D. (2015b, February 24). MARQUES ALMEIDA LONDON RTW FALL WINTER 2015 FEBRUARY 2015. *the Daily front row*. Retrieved August 7, 2017, from <https://fashionweekdaily.com/marques-almeida-fall-2015/marques-almeidalondon-rtw-fall-winter-2015-february-2015-20>
- Chivu, D. (2016a, March 2). JACQUEMUS PARIS RTW FALL WINTER 2016 MARCH 2016. *the Daily front row*. Retrieved August 7, 2017, from <https://fashionweekdaily.com/jacquemus-fallwinter-2016/jacquemus-paris-rtw-fall-winter-2016-march-2016-35>
- Chivu, D. (2016b, March 4). VETEMENTS PARIS RTW FALL WINTER 2016 MARCH 2016. *the Daily front row*. Retrieved August 7, 2017, from <https://fashionweekdaily.com/vetements-fallwinter-2016/vetements-paris-rtw-fall-winter-2016-march-2016-25>
- Cho, S. M. (2002). *A study on the deconstruction of Belgian modern fash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jong University, Seoul.
- Chung, S. H., & Kim, Y. S. (2015). A study on the deconstruction shown in the 21st century fashion decentering phenomenon. *The Research Journal on the Costume Culture*, 23(1), 145-160. doi:10.7741/2015.23.1.145
- Curate. (2017, May 1). VINTAGE NEWS | HOW REI KAWAKUBO SPENT DECADES DEFINING THE AVANT-GARDE. *CURATED*. Retrieved August 7, 2017, from <https://www.shrimptoncouture.com/blogs/curated/vintage-news-how-rei-kawakubo-spent-decades-defining-the-avant-garde>
- Dong, J. M. (2017, April 9). 가장 안전한 지역 꼽혔던 북유럽마저...유럽에 테러 안전지대는 없다 [Considered one of safety areas, even the Nordic region was...there is no safe zone of terrorism in Europe]. *donga.com*. Retrieved June 7, 2017, from <http://news.donga.com/3/all/20170409/83769752/1>
- EL EDIFICIO. (n.d.). *BiOMUSEO*. Retrieved June 8, 2017, from <http://www.biomuseopanama.org/es/conoce-el-biomuseo/el-edificio>
- FALL 1995 READY-TO-WEAR Comme des Garçons. (1995). *VOGUE*. Retrieved May 14, 2017,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fall-1995-ready-to-wear/comme-des-garcons/slideshow/collection#19>
- FALL 1995 READY-TO-WEAR Maison-martin-margiela. (1995). *VOGUE*. Retrieved May 14, 2017,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fall-1995-ready-to-wear/maison-martin-margiela/slideshow/collection#17>
- FALL 2016 READY-TO-WEAR Vetements. (2016a). *VOGUE*.

- Retrieved May 14, 2017,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6-ready-to-wear/vetements/slideshow/collection#34>
- FALL 2016 READY-TO-WEAR Vetements. (2016b). *VOGUE*. Retrieved May 14, 2017,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6-ready-to-wear/vetements/slideshow/collection#47>
- Jacquemus-Ready-to-Wear-Runway Collection-Women Fall/Winter 2016. (2016). *firstVIEW*. Retrieved August 7, 2017, from http://www.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59&collection=44116&image=6361414#.WYvzdFKQy71
- Jacquemus-Ready-to-Wear-Runway Collection-Women Spring/Summer 2015. (2014). *firstVIEW*. Retrieved August 7, 2017, from http://www.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89&collection=40132&image=5708495#.WYfyWIKQy70
- Jacquemus-Ready-to-Wear-Runway Collection-Women Spring/Summer 2017. (2016). *firstVIEW*. Retrieved August 7, 2017, from http://www.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59&collection=45845&image=6892003#.WYvz4IKQy71
- Jacquemus-Ready-to-Wear-Runway Details-Women Spring/Summer 2016. (2015). *firstVIEW*. Retrieved August 7, 2017, from http://www.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25&collection=42987&image=6106720#.WYfvVIKQy70
- Jang, J. I., & Lee, Y. H. (2006). Deconstructive fashion expressed in the work of Martin Margiela.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Knit Design*, 4(1), 64-77.
- Jiang, M. (2017). *Decomposition of deconstruction in denim fash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 Jo, E. A., & Park, J. H. (2017). Influences of post-Soviet in fashion designer Denma Gvasalia's work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7(1), 137-153. doi:10.18.652/2017.17.1.9
- Jun, E. B. (2010). *A study on design concept and characteristics in Rei Kawakubo's fashion and spa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 Kim, A. J. (1998). *A study on fashion design applied to the formativeness of desconstyuctism*.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il University, Gyeongsan.
- Kim, H. J. (2000). A study on the external form characteristic depicted on the deconstructional fash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sign Science*, 13(3), 271-280.
- Kim, S. E., & Ha, J. S. (2016). A study on aesthetic values of neo-deconstructive fashion: Focused on Vetments, Marques' Almeida, Jacquemu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6(4), 132-146. doi:10.18652/2016.16.4.8
- Kim, S. Y. (2016). An analysis of Vetements fashion collections and its internal mean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22(3), 67-80. doi:10.18208/2016.22.3.67
- Kwon, J. Y. (2009). *A comparative studies on fashion trends colors and deconstruction fashion col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jong.
- Lee, J. J., & Park, S. M. (2011). *패션 문화를 말하다* [Fashion about culture]. Seoul: Yekyong Publishing Co.
- Lee, J. Y. (2015). *A study on defense mechanism expressed in contemporary fashion: Focusing on Alexander McQueen's colle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Duksung Women's University, Seoul.
- Lee, Y. H. (2002). *패션문화* [Fashion culture]. Seoul: Yehaksa.
- Li, W. Q. (2016). *A study of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global fashion brand in Japa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Chungju.
- Marques Almeida Ready-to-Wear Runway Collection Fall/Winter 2017. (2017). *firstVIEW*. Retrieved August 7, 2017, from http://www.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17&collection=46888&image=7212389#.WYv0MIKQy71
- Marques Almeida Ready-to-Wear Runway Collection Spring/Summer 2016. (2015). *firstVIEW*. Retrieved August 7, 2017, from http://www.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61&collection=42834&image=6080459#.WYf4fFKQy70
- Marques Almeida Ready-to-Wear Runway Collection Spring/Summer 2017. (2016). *firstVIEW*. Retrieved August 7, 2017, from http://www.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52&collection=45717&image=6823169#.WYf26IKQy70
- Nam, J. H. (2017, April 3). 대체는 스테이먼트 티셔츠 [Big trend, statement T-shirts]. *allure*. Retrieved July 3, 2017, from <http://www.allurekorea.com/2017/04/03/%ec%8a%ac%eb%a1%9c%ea%b1%b4%ec%9d%84-%ec%a0%81%ec%9d%80-%ec%8a%a4%ed%85%8c%ec%9d%b4%ed%8a%b8%eb%a8%bc%ed%8a%b8-%ed%8b%b0%ec%85%94%ec%b8%a0>
- No, M. J. (2004). *An effect of de-construction costumes on the expression of characters in the mov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Seoul.
- Park, Y. G. (2015, July 22). *친난난만한 순간* [Guileless moment]. *W KOREA*. Retrieved July 10, 2017, from <http://www.wkorea.com/2015/07/22/%ec%b2%9c%ec%a7%84%eb%82%9c%eb%a7%8c%ed%95%9c-%ec%88%9c%ea%b0%84>
- SPRING 1998 READY-TO-WEAR Comme des Garçons. (1997). *VOGUE*. Retrieved May 14, 2017,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1998-ready-to-wear/comme-des-garcons/slideshow/collection#26>
- SPRING 1998 READY-TO-WEAR Jean Paul Gaultier. (1997). *VOGUE*. Retrieved May 14, 2017,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1998-ready-to-wear/jean-paul-gaultier/slideshow/collection#46>
- SPRING 1998 READY-TO-WEAR Maison Margiela. (1997). *VOGUE*. Retrieved May 14, 2017,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1998-ready-to-wear/maison-martin-margiela/slideshow/collection#24>
- SPRING 2000 READY-TO-WEAR JEAN-PAUL-GAULTIER. (1999). *VOGUE*. Retrieved May 14, 2017,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00-ready-to-wear/jean-paul-gaultier/slideshow/collection#30>
- SPRING 2016 READY-TO-WEAR Jacquemus. (2015). *VOGUE*. Retrieved May 14, 2017, from <http://www.vogue.com/fashion>

- shows/spring-2016-ready-to-wear/jacquemus/slideshow/collection
- SPRING 2016 READY-TO-WEAR Vetements. (2015). *VOGUE*. Retrieved May 14, 2017, from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6-ready-to-wear/vetements/slideshow/collection#27>
- SPRING 2017 READY-TO-WEAR Vetements. (2016a). *VOGUE*. Retrieved May 14, 2017,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7-ready-to-wear/vetements/slideshow/collection#43>
- SPRING 2017 READY-TO-WEAR Vetements. (2016b). *VOGUE*. Retrieved May 14, 2017,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7-ready-to-wear/vetements/slideshow/collection#39>
- Vetements-Ready-to-Wear-Runway Collection-Women Fall/Winter 2016. (2016a). *firstVIEW*. Retrieved August 7, 2017, from http://www.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84&collection=44159&image=6368729#.WYfwQFKQy70
- Vetements-Ready-to-Wear-Runway Collection-Women Fall/Winter 2016. (2016b). *firstVIEW*. Retrieved August 7, 2017, from http://www.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96&collection=44159&image=6368741#.WYv071KQy71
- Vetements-Ready-to-Wear-Runway Collection-Women Spring /Summer 2016. (2015). *firstVIEW*. Retrieved August 7, 2017, from http://www.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1&collection=43017&image=6114146#.WYv1PIKQy71
- Vivienne Westwood-Ready-to-Wear-Runway Collection-Women Spring/Summer 2003. (n.d.). *firstVIEW*. http://www.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166&collection=5579&image=806294#.WiuQY1V1_IV
- Y Project-Ready-to-Wear-Runway Collection-Women Fall/Winter 2016. (2016). *firstVIEW*. Retrieved August 7, 2017, from http://www.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39&collection=44119&image=6361775#.WYfzZIKQy70
- Y Project-Ready-to-Wear-Runway Collection-Women Spring /Summer 2017. (2016a). *firstVIEW*. Retrieved August 7, 2017, from http://www.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68&collection=45875&image=6894966#.WYfuHIKQy70
- Y Project-Ready-to-Wear-Runway Collection-Women Spring /Summer 2017. (2016b). *firstVIEW*. Retrieved August 7, 2017, from http://www.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80&collection=45875&image=6894978#.WYf1_FKQy70
- Y Project-Ready-to-Wear-Runway Collection-Women Spring /Summer 2017. (2016c). *firstVIEW*. Retrieved August 7, 2017, from http://www.firstview.com/collection_image_closeup.php?of=59&collection=45875&image=6894957#.WYv0slKQy71
- Y/Project Spring/Summer 2016 Ready-To-Wear Collection. (2015, September 29). *VOGUE BRITISH*. Retrieved May 14, 2017, from <http://www.vogue.co.uk/shows/spring-summer-2016-ready-to-wear/yproject/collection>
- Yu, I. N. (2015, March 18). ‘예술 작품 같은’ 세계적 건축물 8 [‘Like art’ world-wide architecture 8]. *KoreaDaily*. Retrieved June, 7, 2017, from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240814
- VÉ MÁY BAY ĐI MINNEAPOLIS [Aircraft ticket go minneapolis]. (n.d.). *GLOBAL*. Retrieved August 7, 2017, from http://vegiaredimy.com/ve-may-bay-di-minneapolis_40.html

A Study on the Design Characteristics in Positive Deconstruction Fashion

- Focused on the Collections since the 2014 -

Kim, So Hee • Kim, Yoon⁺

Master's course, Dept. of Fashion·Textile Design, Duksung Women's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Duksung Women's University⁺

Abstract

In recent years, fear and anxiety have been increasing in society in general. The public is turning into a way of expressing positive hope and joy against everyday threats. Affected by society and culture, deconstruction is also expressed in a more positive form.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s as well as design expression characteristics of deconstruction fashion that is transitioning to the new direction, and to research the intrinsic meanings of positive deconstruction fashion and values pursued by the current changing era. The study method was combined with literature review and case analysis. Positive deconstruction fashion was a new transition from the existing deconstruction fashion to overcome a sense of loss and anxiety, which was originated from the continued negative accidents in the society at large. Deconstruction fashion, which had addressed the social and cultural issues in closed and negative ways, is now transforming itself by expressing fashion in positive, playful and popular ways. The study identified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positive deconstruction fashion, which were different from the existing deconstruction fashion, as 'the positive and playful direction', 'youth culture expression' and 'everydayness'. Based on the features, the study contemplated the design features, which have appeared in fashion collections since 2014, in the categories of silhouette, detail, color, material and pattern. In terms of silhouette and detail, 'everydayness' was emphasized and color was most expressive of 'the positive and playful direction'. The material delivered youth culture sensitivity positively, focusing on 'everydayness'. The patterns playfully delivered somewhat rebellious expressions by emphasizing the 'youth culture expression'. The present study will contribute to expanding the design of fashion brands and students, and it can be seen that the social and cultural trends lead to a change in the way of expressing fashion even within the same fashion.

Key words : deconstruction, positive deconstruction fashion, everydayness, the positive and playful direction, youth culture expression

